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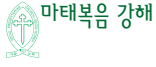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마 12:38-42)

사람들은 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불안하고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완전한 계시이며 응답입니다.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대”(38절).

예수님 당시에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역사들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을 이런 표적 위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39절).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 일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며 예수님은 이것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은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삼 일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만으로 충분한 표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 외에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면 안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영적인 체험과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신앙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유일한 표적 삼아 건강하고,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로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A Wicked Generation Asking for a Sign

(Matt 12:38-42)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People always ask for a sign. But asking for a miracle or a sign is uneasy and drifting.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2 Tim 3:16-17).

We must stand firm only on God’s word. God’s word is a way to make us his people perfect and have ability to do all of good things. The only word of the Bible is a complete revelation and necessary for our faith and life.

“Then some of the Pharisees and teachers of the law said to him, “Teacher, we want to see a miraculous sign from you” (v.

38).

At the time of Jesus, there were some people asking for a sign. If the sign had been shown to them, they would have believed God. But Jesus said that asking for a sign is the evidence of a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Even then, it is not for us not to expect the works of which the sick are healed and we receive the response of prayer for our life problem. It means that we should not put our faith on such a sign .

“He answered, ‘A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asks for a miraculous sign! But no one will be given it except the sign of prophet Jonah””(v. 39).

The sign of Prophet Jonah means that Jesus was dead on the cross, in three days, He won the power of death, and rose from the death, resurrection. Jesus said that only the above incidents are the signs to show to us. The Bible, first of all, proves nothing more or less than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And this sign is enough for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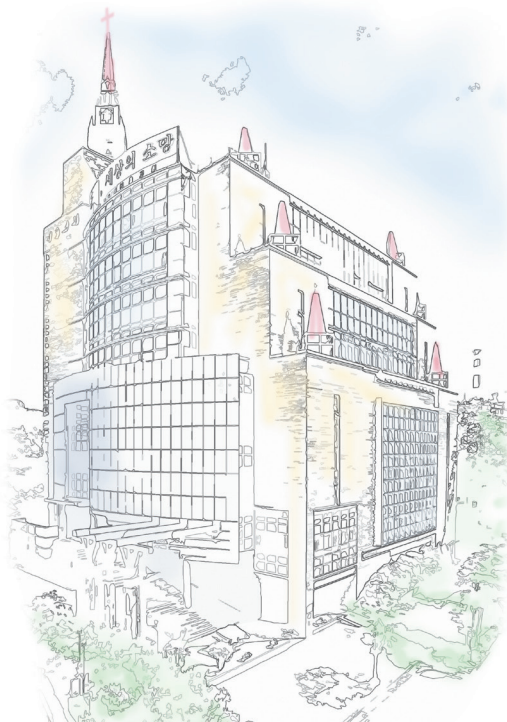
My beloved Christian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son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We believe this scripture with our emotions. And we have a sign enough to know that he died for us, third day rose from the death, called, resurrection. We should never try to ask for another sign except this.

Of course, God shares a spiritual experience and miracle but those can never be the basis of faith.

By standing strongly only on the God’s word, we must target the unique sign of Jesus Christ’s resurrection. The life of faith cultivating virtue healthily, wonderfully,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people winning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4년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

3월 18일(화) 오후 7시 30분, 101호



강사: 박병수 목사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가 18일(화) 오후 7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101호)에서 열린다. 이날 강의는 교회교육전문가 박병수 목사(상도중앙교회 담임목사, 장신대 기독교교육 겸임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교육위원회, 새가족위원회 교사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전원 참석하여 교육을 받기 바란다. 교사들을 위한 저녁식사는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준비된다.

제35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상반기 열린프로그램 접수 중

3월 3일(월) ~ 5월 11일(주일) (10주간)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 35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상반기 열린프로그램이 지난 3일(월)에 개강하여 진행되고 있다. 아직 접수 중으로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성경 과목 (10주)	예레미야서	월, 오전 10:00~11:00	조원영 목사	602호
	야고보서	금, 오전 6:00~7:00	박영준 목사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서준권 목사	602호	
선교대학	월, 오후 7:00~8:30	장석남 목사	602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교사양성반	주일, 오후 3:20~4:2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20~4:20	교역자 전체	607호	
전도학교(12주)	주일, 오후 3:20~4:30	배경애 전도사	903호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40 ~ 3:00 (3월16일~5월18일)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	주일 오후 3:30~4:30(3월16일~4월13일)	서준권 목사	906호
수화교실 초급반 (16주) 중급반 (16주)	주일 오후 1:00~1:50 (2월 23일~6월 15일)	임규현 목사	609호(초급) 603호(중급)
어머니 힐링스쿨	화 오전 10:30~12:30 (3월4일~5월13일)	박영준 목사 구본혜 전도사 양세라 전도사	802호
영,유아 어머니 하트스쿨	목 오전 10:30~12:30 (3월6일~5월 8일)	구본혜전도사	706호
BBS 비블리오퍼블학교	토 오전 10:00~12:00 (3월8일~5월 10일)	양세라 전도사	702호



강남노회남선교회 연합월례회

3월 22일(토) 오후 5시, 101호

서울강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 월례회가 3월22일(토) 오후 5시 우리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 월례회에서 우리교회 박노철 담임목사가 설교 한다. 월례회 후 8층 만나홀에서 식탁교제도 나눌 예정이다.

교구위원회 헌신예배

3월 30일(주) 찬양예배 시

교구위원회 헌신예배가 3월 30일(주) 찬양예배시에 있다. 모든 교구일꾼들의 참여를 바란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22)

(문 122) 역대상22:14에 의하면 다윗이 미래성전 건축을 위해 금 십만 달란트를 헌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을만한 것인지 아니면 사본 필경 시 생긴 오자는 아닌지요?

(답) 마조라 텍스트와 칠십인역 성경에서 둘 다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를 바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총액은 군주들의 재산을 훨씬 능가하는 액수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본 필경 시 오류의 가능성도 생각해볼 만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능한 비교로 역대하9:25은 '솔로몬의 병거 메는 말의 외양간이 사천이요 마병은 만 이천 명이 며'했고 열왕기상4:26은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 만이요 마병이 만 이천이라'한 것으로 보아 두기사에서 숫자적 차이가 있음을 보아서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상22:14의 금 십만은 일만의 오류요 은 백만은 십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인 세겔은 왕궁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모세 때 성소에서 사용된 세겔의 1.5 배가 됩니다. 왕상10:17에 의하면 '또 쳐서 늘인 금으로 작은 방패 삼백 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삼 마네라' (150세겔)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9:16은 '또 쳐서 늘인 금으로 작은 방패 삼백 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삼백세겔이라'했습니다. 삼백 세겔은 여섯 마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왕상의 삼 마네와 역대하의 삼백 세겔(여섯마네)사이에는 두 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10만 달란트는 고대시대의 5만 달란트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대기의 달란트는 37.5파운드 무게라면 솔로몬 시대의 75파운드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다윗은 에돔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하마스 요압 아멜렉을 정복했습니다. 삼하8:7-13에 의하면 다윗은 이들 나라에서 빼앗은 금과 은과 농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다윗의 통치 40년의 세월동안 그가 외국으로부터 빼앗은 금은의 양이 금10만 달란트(고대 표준으로는 5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고대 표준으로 50만 달란트)를 미래 성전 건축을 위해 바친 것은 어렵지 않은 계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장기연 성도
(13교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와 보라!”고 안드레에게 말씀 하십니다. 지난해 6월 첫째주 일부터 서울교회에 출석하면서 내가 느낀 소감은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예배 때마다 경험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서울교회에서 내가 느끼고 경험한 바는,

첫째, 담임목사님의 심금을 울리는 설교 말씀에 매료되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매주일 충만한 은혜에 나도 모르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전인 예배당 장식의 검소한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시골에서 흙벽돌로 지은 예배당에서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리며 자랐던 내가

새가족부 수료하며



와 보라!



서울에 올라와 놀랐던 일 중의 하나가 강대상 주변의 화려한 꽃 장식이었습니다. 3만원이면 아프리

카 빈곤지역 어린이 한 명이 한 달을 살 수 있다는데 수많은 어린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돈을 매주 강단의 꽃치장에 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셋째, 교회가 추구하는 일들이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1가정 1선교사 지원운동, 농어촌 교회 후원, 비전 2020 후원 등은 모두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도 올해부터 1가정 1선교사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화상으로 말미암아 얼굴과 목이 붙어버린 가엾은 카자흐스탄의 살리닷과 아버지를 초청해서 열 번이 넘는 수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얼굴모습을 찾도록 해 준 일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역입니다.

넷째, 예배시간의 준수와 사전 준비입니다. 예배 시작 5분전에 예배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서울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70전도대 영성수련회를 마치고

영성의 단계



양중숙 성도
(15교구)

저는 지난 십 여년 이상을 치과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로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전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주일 중 3일만 진료를 하고 진료가 없는 날엔 자녀를 돌보고 안식을 취하며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서는 내안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넘치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맘속에 품고 있던 중 70인 전도대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70인 전도대는 마치 저에게 전도의 용사들을 훈련하는 전도사관 학교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성수련회’가 있다는 말씀에 어린이처럼 기대감으로 기뻐했습니다. 도착 후 경건회를 시작으로 배경에 전도사님이 “믿음의 여정 3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해주셨습니다. 특히 ‘영성의 단계’에서 전 레마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여! 희망을 노래하자”란 제목으로 박영준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찬양과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팀별 기도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모두는 받은 은혜에 너무 감격 했으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평안, 감

사를 이웃에게 나누며 전도, 선교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영성수련회였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7일(월) 백석대 실선신학대학원 특강을 한다. 18일(화) 연세대 Global Institute of Theology(송도캠퍼스)개설 감사예배 축도를 한다.

■ 주간식당봉사 : 엘리야선교회 에스더 전도회(3.16) 모세선교회 한나전도회 (3.23)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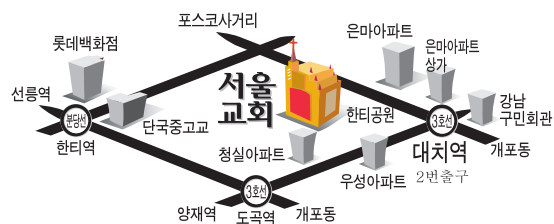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사 연합기도회에 많은 교사들이 참석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맑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2.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에 많은 성도 참석하여 복음의 열매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3. 70인 전도대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갈 때 주님께서 앞서 가셔서 심령들을 준비시켜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